2세마 유망주들 실력을 보여줘

승부사, 선행능력·막판 지구력 겸비
유쾌한날들, '한센 자마'로 큰 관심
벤칼프린세스, 출전마중 상금 최다



무관중으로 운영하는 경마 레이스에서 경주마들이 출발대를 나와 달리고 있다. 한국 경마의 2세마 유망주들이 나서는 '루키 스테이크스'가 5일 개막하지만 벌써 2년째 경마 전체 레이스가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어 이번에 출전한 2세마들이 주목 받을 무대가 불투명하다.

매년 7~8월은 후기육성을 끝낸 2세마들이 트랙에서 본격적인 경주마의 삶을 시작하는 시기다. 이들 신예 경주마들은 저마다 2~3경기를 치르며 갖고 있는 잠재력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5일 서울경마공원에서는 앞으로 한국경마의 미래를 책임질 2세마 유망주들이 나서는 특별경주 '루키 스테이크스'(국OPEN, 1200m, 2세)가 열린다. 이번 '루키 스테이크스'에서 기대를 모으는 2세마들을 정리했다.

●승부사(수, 2세, 정호익 조교사, 국5, R32, 1전 1승)

510kg에 달하는 거구에 스피드까지 갖췄다. 데뷔전에서 초반 선행능력과 막판 지구력까지 보여주며 팬들을 사로잡았다. 1000m 최단거리이긴 하나 근성 있는 추입까지 보여줬다. 좋은 기록으로 단숨에 레이팅 32를 받아 국산 5등급으로 올라섰다.

부마와 모마 모두 경주마로서 뛰어난 성적은 아니지만 혈통 자체는 좋은 편이다. 조부마 인디언찰리는 '산타아니타 더비'(G1, 1800m)에서 우승, '켄터키 더비'(G1, 2000m)'에서 3위를 했다. 외조부마 플레터 역시 '에이피인디(A.P INDY)'의 자마로 6전 4승, 3위 1회의 성적을 기록했다.

●유쾌한날들(수, 2세, 박재우 조교사, 국5, R32, 2전 1승·3위 1회)

뛰어난 출발능력이 인상적이다. 같은 2세마들과 겨룬 데뷔전에서 선두를 끝까지 놓치지 않은 와이어투와이어로 우승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유일한 2세마로 출전해 4코너까지 1위를 유지했으나, 막판 추입을 허용하면서 3위에 머물렀다.

뛰어난 순발력이 증명하듯 부마는 지난해 리딩 사이어인 한센이다. 모마 유성제일 역시 현역시절 1등급까지 승군하며 활약했다. 부마와 자마에게 이어받은 순발력과 선행능력이 출중해 2세마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벤칼프린세스(암, 2세, 서인석 조교사, 국5, R32, 2전 1승·2위 1회)

출전마 중 획득상금이 가장 많다. 데뷔전에서는 출발 후 약간의 주행방해를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뛰어난 추입력으로 2위를 했다. 우승은 놓쳤으나 추입력과 근성으로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두 번째 경주(Rookie1)에서는 2위로 달리다가 막판 직선주로에서 앞으로 나서며 2위와 6마신의 낙승을 거뒀다.

부마 카우보이칼은 씨수말 전환 후 한국경마에서 12두의 1등급 경주마를 배출했다. 모마 인디글로리 역시 에이피인디(A.P. INDY)의 자마로 좋은 혈통이다.

이들은 내년이면 경주마로서 첫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3세마가 된다. 한국경마를 이끌어갈 경주마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내년 이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불투명하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사내 유보금으로 무고객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무고객경마는 내년이면 3년째에 접어든다. 지금처럼 무고객경마가 지속될 시 최고의 3세마를 가려 국산마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온 삼관경주가 제대로 열리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경마의 미래 주춧돌을 놓기 위해서라도 경마 정상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말산업 관계자들이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상황서 직무유기" 말산업계 농식품부 규탄 성명

비대위 "말산업 위기 정확한 사태파악 못해"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말산업계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8월 30일 발표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경마산업 안정화를 위한 지원' 등의 자료가 대부분 허위라며 "말산업 붕괴를 방치하고 방역대책에 역행하는 등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경주마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피해 최소화 노력 중"이라면서 "경주마 경매현황은 2019년과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거래현황이 크게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말산업계가 강력하게 시행을 촉구하는 온라인 발매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마사회 조직 안정화, 대외적으로 혁신을 통한 경마와 마사회 신뢰 회복 후 온라인 운영의 제도적, 기술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축경비대위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경주마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거래와 자가활용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핑계로 위기에 봉착한 말산업에 대한 정확한 사태파악도 못하는 것이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온라인 발매 역시 그동안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을 사실상 고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축경비대위는 "농식품부는 미비한 법을 보완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도박 확산, 청소년 접근 문제 등의 사족을 달아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경비대위는 끝으로 농식품부에게 "2011년 세계 최초로 단일축종 법안인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던 것처럼 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책임감있게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범 기자

"개인 중심 스포츠 승마, 감염병 시국에 딱"

마사회, 승마의 매력 알리기 앞장
사회공익 힐링승마 사업 4일 개시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야외활동을 찾는 이들에게 한국마사회가 승마 스포츠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승마인구가 0.8명 수준이다. 영국의 2.6명, 프랑스 3.4명, 독일의 4.6명에 비해 크게 낮다. 정기적으로 승마를 즐기는 인구 역시 4만 2000명 정도인데, 역시 일본(8만 명), 독일(39만 명), 미국(20만 명)에 비해 적은 수치다.

해외에서는 승마 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승마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작은 말인 포니를 활용한 유소년 승마대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대회를 통해 어린 나이부터 승마에 대한 관심을 키우도록 장려한다. 우리나라 역시 가족 단위 소규모 체험형 레저 활동이 늘고 있어 승마를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

승마는 단체보다 개인 중심의 스포츠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고 실외에서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규칙을 지키며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신체 교정이나 허리 유연성, 집중력을 기르는 데에 좋은 운동으로 올바른 신체 발달을 돕는다.

한국마사회는 국민 누구나 말을 타는 즐거움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우수한 승마시설을 선정해 사회공익 힐링승마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일반인 1000명(1인 10회 총 20만 원 지원)과 사회공익 직군 500명을 대상으로 초급, 중급, 사회공익반으로 구분해 사업이 진행된다. 일반인 대상 강습은 4일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공익 힐링승마 사업에서는 처음으로 참가시설을 대상으로 말산업 컨설팅을 병행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강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국민 신뢰 증진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사회공익 힐링승마 사업은 지금까지 사회공익 직군 6000명, 일반 국민 약 9000명이 체험해 승마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마사회, 승마과정 시범도입

한국마사회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대학교 수업에 승마과정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학점 취득과 승마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학기 교과 과정에 맞춰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한다. 학생들은 마사회 말 전문 수의사로부터 온라인 강의를 통해 말 관련 임상기초를 이론으로 습득하고 승마장에서 기승술 및 말 사양관리와 진료를 체험한다. 마사회 동물병원과 육성목장, 도핑검사소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게 된다. 마사회는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말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체육 승마 시범학교, 도심공원 승마체험 등의 승마보급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11번홀 이글·17번홀 쿼드러플보기…천당과 지옥 오간 윤석민

KPGA 비즈플레이 오픈 추천선수 출전
15오버파 공동 최하위…프로 벽 실감

350m 거리의 파4 11번 홀. 드라이버 티샷은 235m를 날아가 페어웨이에 떨어졌다. 남은 거리는 115m. 침착하게 친 세컨 샷은 그대로 홀컵에 빨려 들어갔다. 샷 이글이었다.

이 홀만 놓고 보면 프로 못지않았다. 그러나 역시 안정감은 떨어졌다. 아무리 실력이 빼어나도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였다.

한때 한국프로야구를 호령했던 KIA 타이거즈 투수 출신 윤석민(35)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정규 대회 데뷔 무대에서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2일 전남 나주의 해피니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총상금 6억 원)에 공인 핸디캡 3 이하의 아마추어 추천 선수 자격으로 출전해 15오버파를 쳤다. 이글 1개, 버디 1개와 보기 4개, 더블 보기 2개, 트리플 보기 2개, 쿼드러플 보기 1개를 적어냈다.



1번(파5) 홀에서 티샷을 페어웨이에 보낸 뒤 3번 만에 그린에 올려 파를 잡는 등 출발은 무난했다. 2번(파4) 홀에선 세컨 샷이 그린을 넘어 OB(아웃오브바운드) 구역으로 날아가 한 순간에 3타를 잃었다. 3번(파4) 홀에서도 다시 1타를 잃었고, 5번(파3) 홀과 9번(파4) 홀에서도 각각 더블보기를 적어냈다.

후반은 더욱 '화려했다'. 11번 홀 이글과 13번(파5) 홀 버디로 3타를 줄였지만, 17번(파5) 홀에서는 한꺼번에 4타를 잃는 쿼드러플보기로 고개를 떨구는 등 '갈 지(之)자' 행보를 이어갔고, 마지막 18번(파4) 홀에서 보기로 홀아웃하며 87타를 기록해 결국 공동 최하위(147위)에 자리했다.

"OB가 너무 많이 났던 것 같다. 샷이 잘 안 되고 결과가 안 좋다 보니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놓은 그는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다"며 아쉬움에 쓴웃음을 지은 뒤 "비가 오는 악조건 속에서 언더파를 치는 1부 투어 선수들이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샷 이글 상황에 대해 "어프로치 이글은 해봤는데 샷 이글은 처음"이라고 설명한 윤석민은 "내일은 5오버파 이하로 줄여보겠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한 윤석민은 지난해 말 '정푸드코리아'와 후원 계약을 하고 KPGA 2부 투어 도전 의사를 밝히는 등 골프에 남다른 재능과 함께 애착을 보여왔다. 윤석민에 앞서 초청 선수로 올 코리안투어 두 대회에 출전했던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38)는 두 번 모두 예선 최하위에 그쳐 컷 통과에 실패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페더러, 최근 1년 수입 1052억원…테니스스타 1위

美 포브스 조사…경기 외 수입이 99%
세계 1위 조코비치 441억원…4위 그쳐

'황제' 로저 페더러(40·스위스)가 최근 1년간 전 세계 테니스선수들 중 최고 수입을 올렸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일(한국시간) 테니스선수들의 최근 1년 수입을 조사해 상위 10명을 공개했다. 페더러는 총 9060만 달러(약 1052억 원)를 벌어 1위에 올랐다.

페더러는 지난 1년간 대회 출전에 따른 상금으로 벌어들인 돈이 60만 달러에 불과했다. 무릎 수술을 받아 5개 대회에만 출전했고, 최고 성적은 메이저대회인 윔블던 8강이었다. 그러나 경기 외 수입이 9000만 달러에 달했다. 후원계약을 통해 엄청난 소득을 챙겼다. 페더러는 테니스선수 연간 수입 부문에서 16년 연속 1위를 지켰다.

2위는 일본의 여자테니스 스타 오사카 나오미였다. 오사카는 대회 상금으로 510만 달러, 경기 외 수입 5500만 달러를 합쳐 총 6010만 달러(약 698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3위는 미국의 세레나 윌리엄스로 총 4180만 달러(약 485억 원)를 챙겼다.



남자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는 총 3800만 달러(약 441억 원)로 4위에 자리했다. 5위는 2700만 달러(약 313억 원)를 번 라파엘 나달(스페인)이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